

대선 D-5 광주·전남 막판 표심잡기



대한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손학규,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13일 광주 송정시장을 찾아 유세를 통해 민주개혁세력의 단합을 촉구하고 대역전을 다짐한 뒤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정몽준 의원이 13일 오후 광주 총장로 우체국 앞에서 지원 유세를 갖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고경식기자 ksgo@kwangju.co.kr

“DJ가 격려했다” “호남 홀대 없다”

17대 대선을 열세 앞둔 13일 부재자 투표 개시와 함께 주요 후보들과 중앙·지방선대위는 광주·전남 전역을 돌며 막판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대통령민주당과 민주당은 후보와 선대위 핵심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뒤통’다지기를 피했고, 한나라당은 정몽준 의원 등을 앞세워 취약지역인 광주 표심을 두드렸다.

‘목포의 눈물’ 열창

○대한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는 이날 범여권의 ‘정치적 메카’인 광주·전남을 찾아 여수와 순천, 목포, 광주 등 핵심지역을 동서로 누비며 호남 지지를 끌어올리기에 힘을 쏟았다. 반전의 출구가 엿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핵심 지지기반으로 되돌아가 정치적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막판 대역전을 연출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는 먼저 2012년 세계엑스포를 유치한 여수의 GS칼텍스 석유화학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순천 중앙시장을 거쳐 오후에는 목포역 광장과 광주 송정시장 등지에서 대규모 유세를 펼쳤다.

정 후보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지지자 2천여 명이 ‘정동영’을 연호하며 앙코르를 외치자 한껏 고무된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 손학규,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목포의 눈물’을 열창했다. 정 후보는 유세에서 “전국을 돌면

서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보수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 믿지 말라. 100명에게 전화하면 15명만 답하고 85명은 끊는다고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흥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찌나’ 하는 걱정에 찔끔해 하고 있다”며 이명박 후보를 겨냥했다.

정 후보는 또 목포에서 광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내용을 소개했다. 정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격려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소개했다.

전남 각계 여성대표 1천219명으로 구성된 ‘가족행복 공동체’를 일구는 전남여성’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친화적 정책과 비전을 갖춘 정동영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정몽준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지원 유세를 갖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판 바뀌 달라”

정 의원은 국립5·18민주묘지와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 참배한 뒤 총장실에서 가진 지원연설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호남 지역이 홀대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 후보는 어제 ‘광주에 가면 그

지역에서 나와 함께 일할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고 민심 당선 뒤 결코 호남을 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겨 왔는데 이런 잘못을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 시민들이 앞장서 바로잡아 정치판을 바꿔달라”며 “광주·전남에서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은 ‘잇동네’인 전북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 역시 가까운 ‘옆동네’ 출신이므로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정 의원의 총장로 지원유세에는 최구식·김애실 의원과 유준상 상임고문, 한영 최고위원, 이만의 광주선대위원장, 김주훈 전 조선대총장 등이 함께 했다.

“선거혁명 꼭 이뤄달라”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이날 대전과 전주, 목포, 광주 등 ‘서부벨트’를 오가며 독자행보를 강화했다. 이 후보는 광주 금남로 등지의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여론조사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 저와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싸움”이라며 “반드시 위대한 선거혁명을 이뤄달라”고 호소했다.

박상천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가 되지 않은 것은 (단일화) 한다고 해도 대선 승리 가능성이 없는데다 당 후보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광성 외유 끊겠다” 의지 표현

감사원, ‘여비 반납’ 조치 왜

개선 의지 없는 공직사회 경종

지방자치제 실시후 공직사회에서 각종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근절하기 위해 감사원이 칼을 들이대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감사원 초강경 대처=감사원이 전남도와 보성군의 회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쓰인 여비 반납을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 등은 제도개선과 각성을 촉구하는 선에 머물렀지만 이번 감사원이 여비반납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이 이처럼 강경대응한 것은 그동안 술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스스로의 개선의지가 희박하다고 보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더욱이 감사원은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도 경우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적받은 보성군의회의 경우 2004~2005년 실시한 연수기간 동안 ‘연수목적 부합비율’은 0%로 조사됐다. 연수목적부합비율이란 해외연수시 이동시간을 제외한 외국 체류시간 전체에서 연수 취지대로 사회복지시설과 교육기관, 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보낸 시간의 비율을 따진 것이다. 당시 보성군의회의 연수는 사실상 100% 관광성 외유였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물개 소만 보고 귀국=감사원이 이번에 문제를 제기

한 부분은 지난 2006년 10월10일부터 보성군의회의장 등 의원 3명과 의회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이 ‘선진지방자치제도 시찰’ 명목으로 떠난 해외연수다.

이들은 애초 스리랑카, 두바이, 일본을 방문기로 했으나 연수대상국가 기관 방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계획을 바꿔 예정에도 없었던 케냐, 탄자니아 등을 방문했다. 이들은 해외체류 기간 전체 14일동안 사파리케추쇼, 물개 쇼, 돌고래 쇼 등만 구경하고 귀국했다.

2007년 2월에는 또 다른 보성군의회의 의원 3명과 의회 직원 등 4명이 역시 ‘선진지방자치 시찰’ 명목으로 그리스, 터키 등 4개국을 둘러보기로 했으나, 특정 여행사의 관광패키지 상품을 이용한다 현지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기관은 단 한 곳도 방문하지 않고 이집트 피라미드 등 관광지만 여행한 뒤 귀국했다.

◇궁색한 변명=보성군의회의는 이와 관련 ▲현지방문 국과 일정 상의에 한계가 있었고 ▲관광성 여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 2005년 9월 19일부터 10일간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진행된 ‘해외축제벤처마킹’ 연수가 문제가 됐다. 도의원 5명과 공무원, 언론인 등 17명이 참가, 체코와 헝가리, 오스트리아의 축제를 둘러본 당시의 연수에 대해 감사원은 ‘현지 국가의 관련 기관을 찾아보지 못했다’며 외유성 관광으로 판단했다. 연수국가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기로 해 놓고 실제로는 가지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분명 현지에서 진행되는 축제의 현장을 둘러봤으며, 축제 기반시설로 찾아가 벤치마킹을 했다. 또 연수에서 돌아와서는 보고서도 제출한 만큼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woo (Korean beef) featuring a woman in a white Hanbok. Text includes '한우와 한우가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and '한우판매업 인종계 소비자에 대한 한우농가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It also features a table with statistics about Hanwoo production and consumption.

광주·전남 유권자 253만 2,164명 전국의 6.7%

제17대 대통령 선거 광주·전남지역 유권자 수가 253만2천164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권자는 103만1천333명, 전남지역 유권자는 150만 831명 등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국 유권자 3천765만3천518명의 6.7%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국의 총 유권자 수는 2002년 실시한 제16대 대선의 3천499만1천529명보다 266만1천989명(7.6%)이 증가했고,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작년 5·31 지방선거의 3천706만4천282명보다는 58만 9천236명(1.6%)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유권자는 지난달 21일 인구 4천921만9천516명의 76.5%이며, 이 중 남자는 49.2%인 1천

853만9천585명, 여자는 50.8%인 1천911만3천933명으로 여성이 약간 많다. 연령별대로는 20대 730만7천250명(19.4%), 30대 862만7천865명(22.9%), 40대 847만9천249명(22.5%), 50대 581만1천899명(15.4%), 60대 이상 680만 4천126명(18.1%)으로 30대 유권자가 가장 많다. 대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19세 유권자는 62만3천129명으로 전체의 1.7%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선거인인 822만2천124명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 805만1천696명, 부산 284만3천63명 순이며, 제주도가 41만4천22명으로 선거인수가 가장 적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선거인수는 1천827만9천694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48.5%를 차지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산업생산성 획기적 성과

제조업체·종사자 수 증가를 6대 광역시중 1위

광주시가 지난 2000년 이후 산업생산성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이자 산업생산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산업생산지수’가 2001년 6대 광역시 가운데 4위(94.6)였으나 올 10월 현재는 1위(179.2)를 달성했다. 제조업체 수와 종업원 증가율에서 있어서 2001년 대비 2005년 말 현재

제조업체수는 481개(29.6%증)가 늘었으며, 종사자 수는 1만1천240명(22.7%)이 증가해 6대 광역시 중 각각 1위에 올랐다.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의 경우, 2001년 대비 2005년 말 현재 30% 성장률을 보여 산업도시 울산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제조업 수출 증가율도 2001년 말 30억9천500만불에서 매년 평균 12억 900만불의 신장세를 거듭해 올 11월

현재 100억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 디지털가전, 광산업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들 산업 총매출액 및 고용인수는 2002년 대비 2005년 말 현재 매출액의 경우 5조2천433억원이 증가하고, 고용수도 1만100명이 늘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통계청 등 공식력 있는 기관의 다양한 산업경제지표에서 6대 광역시와 비교할 경우 대부분 1위 또는 상위권으로 나타나 광주시가 산업도시로 정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